

# 막오른 세월호 국감...참사 키운 부실 대응·눈치보기 감사 질타

### “해수부·해경 공조 부족·책임 떠넘기기” 여야 한 목소리 이주영 “며칠 정도면 수색 완료...인양 거론은 아직 일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국감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질타와 이에 대한 부실 감사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먼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집중 따졌다.

새누리당 운영희 의원은 “세월호 조난 교신을 받은 해수부 관할 제주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해경 관할 진도 VTS 교신까지 52분이나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해수부와 해경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일원화된 지휘 체계를 갖고 구조를 하기는커녕 화물 과적과 사고 수습 관련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며 “해수부와 해경 간 공조 부족이 사고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은 “해경이 세월호 사고 50일 전 시행한 특별안전점검에서 세월호는 모든 항목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세월호 사고가 나기 전 1년 동안 운항관리자가 시행하는 월례점검 및 해경과 항만정소속 공무원이 점검하는 특별점검 등 총

12번의 점검에서도 세월호 침몰 원인 중 하나인 ‘고박장비’는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여야 위원들의 이러한 지적에 이주영 해수부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세월호 사고 대응에 부실이 있음을 인정했다. 또 이 장관은 국감에 임하는 인사말을 통해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열 분에게 매우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김 청장도 인사말에서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남아있는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세월호 수색 완료 시점과 관련해 “선체가 거의 바닥까지 간 상황이 때문에 (수색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확한 날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며칠 정도다”라고 밝혔다.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 “인양을 검토한 적은 있지만 인양 여부를 거론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대답했다.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세월호 감사를 놓고 ‘부실 감사’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날 질의자료

를 법리에도 맞지 않는 근거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감사원이 이에 대하여 수긍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감사원을 질책했다. 서 의원은 이어 “감사원이 청와대가 부담스럽고 제대로 감사를 할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법률위반일 수도 있었다며 핑곗거리를 만들고 ‘수박 겉핥기식’ 감사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은 세월호참사 당일 강병규 안행부 장관이 ‘전원구조 오보’를 확인하고도 정식보고라인이 아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김기춘 실장이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의 상황 설명을 보고받고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 문제가 이 때문에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감사원이 세월호 감사 징계요구자 50명 중 절반에 대해 주의 등 경징계를 하거나 사안 통보, 인사자료 통보만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무원 개혁을 위해서는 감사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감사원이 비위 등을 적발하고도 제대로 징계요청하지 않으면 감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 공무원들이 15일 오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ina@kwangju.co.kr

## 신분·계층 넘어 사랑 받은 조선의 책거리

김은영의 '그림 생각' (87) 책

“적막의 포로가 되는 것/공급한 게 없이 게을러지는 것/아무 이유 없이 걷는 것/햇볕이 슬어놓은 나라 냄새 맡는 것/마른 풀처럼 더 이상 뻗지 않는 것/.../초록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 <안도현 작 ‘가을의 소원’ 중에서>

시인의 소원에 ‘하루 종일 뿔뿔하며 책 읽는 것’을 추가하고 싶은 계절이다. 가을이면 ‘너무나도 유명하지만 아직 읽지 못한’ 고전도 펼쳐보고, 다시 읽어볼 양으로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놓았던 구절도 되새김질 해보고 싶어지는가 보다.

살면서 가장 부러운 것은 ‘독서력’이 탄탄한 사람이다. 동서고금을 넘나

드는 독서가의 도서목록은 당장 읽을 계획이 없더라도 일단 소장해두면 마음 든든하다.

유난히 책과 학문을 숭상한 거레이 어서인지 조선시대에는 책을 진열한 책장식장 그림이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았다. 중국의 장식장 그림인 다보격(多寶格)은 장식장을 도자기, 청동기, 옥 등 보배스러운 다보로 꾸몄다면, 조선에서는 책가도 또는 책거리라 하여 책을 비롯하여 도자기, 문방구 등으로 장식한 그림이 그려졌다.

조선시대 최고의 책거리 화가로 꼽혔던 이형록의 ‘책거리 병풍’(19세기 작)은 짜임새 있는 구도, 중후한 색채, 섬세한 묘사가 돋보이는 명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가에는 책과 도자기 등 진귀하고 아취 있는 문방이 완물이 가득하고 서양화의 영향을 받아 원근법의 공간에 음영법까지 표현되어 있다.

‘무명화가들의 반란 민화’의 저자 이형록 작 ‘책거리 병풍’

정보대교수(경주대 문화재학과)는 “정조대왕이 일찍이 대신들에게 ‘비록 책을 읽을 수 없다 하더라도 서실에 들어가 책을 어루만지기만 해도 기쁜 마음이 샘솟는다’고 강조하면서 ‘책거리그림’을 구상했다”는 기록을 전한다. 책거리는 당시 조정의 고관대작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고 조선시대 후기에 무너져 내린 신분 질서와 경제성장에 힘입어 일부 부민층의 호사취미의 대상이 되다가 서민 취향의 민화 책거리로 퍼져나갔다고 하니 계층을 넘어 사랑받은 그림이었던 셈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 ‘검코’ 구상권 청구·공무원 낙하산 재취업 등 쟁점

국회 안행위 오늘 광주시 국감  
감사자료 466건 요청  
공무원 금품수수 징계 증가  
수영대회 선수촌 도마에

16일 광주시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국제사기로 마무리된 3D 컨버팅(3차원 입체영상 변환) 한·미합작투자법인 검코(GAMCO) 사건을 비롯한 도시철도 1, 2호선 문제, 2019년 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건립 지연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민선시대 특별채용과 퇴직 공무원의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낙하산 취업, 공무원 금품수수 등 징계 증가 여부 등도 집중적인 지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반장을 맡은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급 이하 미담 사례 3건 제출”을, 박인숙 의원은 광주시 청사내 도청 관련 기기 자료를 각각 요구해 눈에 띄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국회 안행위 지방감사 2반 10명(새누리 5명, 새정치 4명, 통진당 1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예정이다.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난 2012년 10

이 수천만원에 불과해 소송을 끌고 가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 포기를 결정한 상태다. 시는 검코 관련자들의 형사재판이 끝나면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상권 청구(공소시효 10년)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국제사기로 형세를 날리게 된 경위와 함께 공무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승용, 이철우 의원 등은 민선 6기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와 1호선 운영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했으며, 특히 주 의원은 관외이 논란 등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 공무원 출신 도시철도 민간 위탁 역장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정청래 의원은 광주시가 유치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선수촌 건립이 지연되는 이유, 금품 수수 공무원 문제 등을 따질 것으로 예상되며, 유대운 의원은 퇴직 공무원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재취업 문제 등을 지적할 계획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로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 +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상무지구 방면  
운암동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1110-홍-10719호

**Beautis**  
Clear skin & laser clinic

**맑은피부과·성형외과**

-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 피부과 전문의 진료

- 레이저센터 (최신 30여종)
- 항노화치료
- 기미클리닉
- 성형외과
- 지방이식 흡입
- 모발이식 관리
- 에스텍

**맑고 깨끗한 피부제안**  
For your best skin

-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 ① 리프팅레이저: 볼레리, 써미지, 웨너트 복합치료
- ② 에드레이저: 수주스팀, 아이솔 브이빔, 프락셀
- ③ 세오 레이저: 쉐들렉스, 디오오우즈메오
- ④ 피부 미백: 쉐들렉스, 쉐들렉스, 쉐들렉스
- ⑤ 주름·출혈: 프락셀, 울트라펄스, 프랙토라, 인트라셀, 프락셀 케나
- ⑥ 모공: 쉐들렉스, 프락셀5종
- ⑦ 비인: 네오모트라, 지방흡입

[상무점] 상무지구 미즈피어빌딩B/D 1F | Tel: 385-7575, 1177 | 에스텍: 385-0009 www.clear-skin.co.kr | www.s-thebic.co.kr  
[운암점] 문희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528-1415 | 무료전화: 080-707-7575 | 에스텍: 525-7555